

# ‘낙태 강요’ K배우 김선호였나?

전 여자친구 주장한 A씨 온라인 폭로 “혼인빙자 거짓회유로 아이 지웠다” 일부 누리꾼들 ‘갯마을’ 김선호 지목 소속사는 외부와 연락 끊고 묵묵부답

한 남성 연기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폭로성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선호(35)가 ‘장본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은 17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세 배우’ K씨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했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해 초부터 5월 말까지 K를 만났다”면서 “그가 혼인을 빙자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아이를 임신했다는 A씨는 “K가 ‘지금 아이를 낳으면 9억원에 달



남성 연기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이 ‘김선호’가 장본인이라 주장하자 그의 팬들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내 입에서 낙태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거짓 회유를 했다”면서 결국 K의 친구와 병원을 찾아 임신중절을 했다고 밝혔다. 또 “K는 2년 후 결혼하자고 약속했으나 임신중절 이후 태도를 바꿨다”면서 “5월 말 전화통화로 이별을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18일 해당 글에 “증거 사진과 문자메시지 내용이 많이 남아 있지만 법적인 이유로 바로 공개하지 않았고, (공개 여부를)고민 중”이라며 “1년 넘게 죄책감과 고통 속에 시달렸다. (폭로를)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일부 누리꾼은 A씨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K가 드라마 촬영 중이었다는 점, K의 최근 주연 드라마가 ‘주인공인 게 티가 나는 제목’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K를 ‘김선호’로 지목했다. 김선호는

지난해 여름 tvN ‘스타트업’을 촬영해 10월에 선보였고, 17일 종영한 ‘갯마을 차차차’의 가제는 캐릭터에서 따온 ‘홍반장’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18일 오후 늦게까지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일부 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분별한 의혹이 난무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담은 게시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냈다.

김선호는 ‘갯마을 차차차’로 국내의 영향력을 키워왔고 현재 KBS 2TV ‘1박 2일’ 시즌4의 고정 출연자로 활약 중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한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김선호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오프라인 콘서트’가 돌아온다

다음달 ‘위드 코로나’ 시행...일상회복 기대  
위너 송민호·강승윤, 에픽하이 등 공연 채비  
가수 적재는 데뷔 후 첫 전국 4개도시 투어

가수들이 오프라인 무대의 막을 열었듯이 있다. 감염병 확산 이후 다양한 공연이 중단되고 그나마 제한적으로 열리는 사이 직격탄을 맞았던 가요계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월 초 시종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과 함께 공연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룹 위너의 송민호와 강승윤이 각각 팬들을 만난다. 이들은 11월19일과 21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솔로 콘서트를 연다. 특히 송민호는 2014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그룹이 아닌 솔로가수로 무대에 오른다.

에픽하이도 12월17~19일 같은 곳에서 콘서트 ‘에픽하이 이즈 히어’를 펼친다. 콘서트는 2019년 ‘현재 상영중’ 이후 약 2년 만이다. 소속사 측은 “거리두기 좌석제,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연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수 원호는 11월13~14일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 ‘위 아 영’을 개최한다. 올해 3월 온라인으로 진행한 ‘#웬디드러브’(#WENBEDLOV) 이후 8개월 만이다.

가수 적재는 내친김에 전국 투어에까지 나선다. 한정된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발길을 넓히기는 데뷔 이후 처음이다. 11월19~21일 예스24라이브홀에서 공연을 펼친 뒤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2월5일 부산문화회관, 18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팬들과 만난다. 서울 공연은 14일 오후 티켓 예매가 시작된 지 불과 3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여전히 꿈을 꾸는 황혼기...3편의 다큐영화에 쏠리는 눈

- 1 ‘...선녀님’ 68세 할머니 도전 감동
- 2 ‘울림의 탄생’ 장인의 열정 그대로
- 3 ‘송해1927’ 무대 뒤 고뇌 담아내

어른들의 이야기가 온다.

오랜 세월 널리 이름을 알려온 인물과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장인의 드러나지 않은 마음, 수십 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겪은 풍상...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여전히 꿈을 꾸며 삶 속에서 걸어 올린 지혜와 희망으로 위로의 손길을 내민다.

오랜 삶의 경험으로 쌓아 올린 새로운 꿈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에 담겨 잇따라 관객을 만난다. 20일 개봉하는 ‘한창나이 선녀님’, 21일 선보이는 ‘울림의 탄생’, 11월18일 관객을 찾는 ‘송해1927’이다. 14일 개봉해 4일 만인 17일 현재까지 1만7000여명을 동원한 ‘노화찬 6411’ 등 다큐멘터리 영화가 새롭게 관객을 불러 모으며 관심을 끌면서 관련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주목된다.

‘한창나이 선녀님’(감독 원호연·제작

큰물고기미디어)는 강원도 산골에서 홀로 살아가는 68세 임신녀 할머니가 농사일의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한글을 배우며 집을 지어가는 모습을 담아낸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투박하지만 구수하게 들려오는 임 할머니의 사투리에 담긴 진심이 친근하면서도 평범한 이들이 전하는 감동을 자아낸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울림의 탄생’(감독 이정준)은 임신빈 약기장의 이야기이다. 소아마비에 고아 출신인 그는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지만 60년 동안 북을 만드는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왔다. 마침내 장인의 자리에 올랐지만, 최근 나머지 한쪽 귀의 청력마저 잃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영화는 임 약기장이 자신의 어린 시절 북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가게 한 북소리를 재현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그린다. 장인으로 세상의 존경을 받기까지 걸어진 60년의 신산했던 과정을 돌이키며 진심의 북소리를 탄생시키기 위해 나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발견, 들리지 않는 소리를 가슴으로 들으려 애쓰는 장인의 새로운 열정이 젊은 관객에게도 울림을 안긴다는 평가

를 받는다.

‘송해1927’(제작 이로츠, 빈스로드)은 코미디언이면서 KBS 1TV ‘전국노래자랑’의 상지 송해의 68년 무대를 담는다. 연출자인 영화 ‘뷰티풀 데이즈’의 윤재호 감독은 여기에 더해 무대 뒤 모습에 카메라를 더욱 깊이 들이킨다.

무대 위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은 송해의 인간적인 삶, 오랜 세월 희극인으로 살아오면서도 가슴 속에서 끝없이 울어 아 했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해 건강이 악화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냈던 그이지만, 무대를 떠날 수 없는 그는 영화를 통해 이어지는 삶의 또 다른 꿈을 말한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한 편의 잘 짜여진 이야기로서 힘을 발휘해왔다. 이제 시대의 어른으로 존경받거나,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삶이더라도, 주인공들의 쌓이고 쌓인 삶의 아픔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여전히 새로운 희망으로 진심을 담아내는 세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기대를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겨울까지! 한 세트면 준비 완료!! 2021 Winter Season

플리스자켓 + 기모집업티 + 패딩조끼 + 벨로아바지 4종세트 69,800원



**1번형**  
자켓\_베이지  
집업티\_버건디  
조끼\_블랙  
바지\_그레이

**2번형**  
자켓\_아이보리  
집업티\_그레이  
조끼\_베이지  
바지\_블랙

**3번형**  
자켓\_네이비  
집업티\_네이비  
조끼\_그레이  
바지\_네이비

올 겨울을 책임질 보온 아이템!

**보아플리스 자켓**

가볍고 우수한 보온성을 자랑하는 소프트한 플리스 원단에 포근하고 부드러운 촉감

쌀쌀한 날씨에 든든한

**약기도 집업티셔츠**

탁월한 약기도 안감 기술을 입힌 집업티셔츠 스포츠 레저활동시 냉기로 부터 몸을 보호

실용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두루 겸비한 패딩 조끼**

사각패턴으로 누빔처리 보온성을 높였으며 카라부분이 V자로 디자인

입는 순간 체감온도 5°C 상승!

**벨로아밴드 바지**

고밀도 벨로아 밴드 바지로 따뜻한 보아펠 안감을 적용해 체온을 유지

자켓	95, 100, 105, 110
집업티	95, 100, 105, 110
조끼	95, 100, 105, 110
바지	95(28~30) 100(31~33) 105(34~36) 110(37~38)

자켓 + 집업티 + 조끼 + 바지 ₩6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